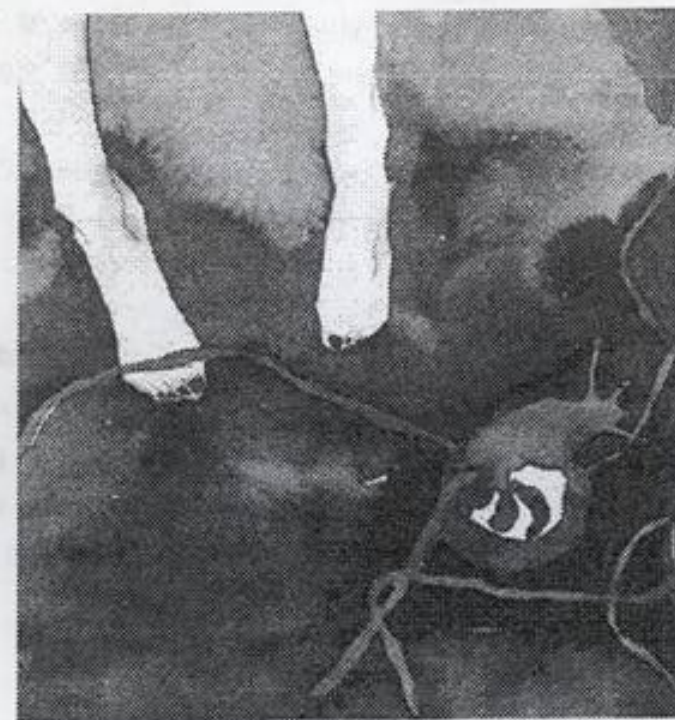


2005 연세 여성주의자 워크숍



www.lazypicnic.com

2005. 08. 20. 토. 오후5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여는 글 -*

안녕하세요, 연세 여성주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푹. 틈 제 17대 총여학생회입니다. 짧은 봄과 괴롭도록 덥던 여름도 훌쩍 지나가고 쾌청한 가을과 아름다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7대 총여학생회에서는 1학기 때 새터 내규 관련 신입생 맞이 행사와 여성학학교, 섹슈얼리티 영화제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촘촘한 억압과 모호한 해방에 관하여」, 강의실 언어성폭력 근절 캠페인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매체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을 불다」 1,2,3호 발간, 월경月慶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Humming, 「엄마와 딸」, Mayday 女/聲, 교성절연, 여연자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反성매매 세미나와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자료집 발간, 새터 反성폭력 내규 개정, 제 8회 여성제, 매체 발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선배들과 함께 여성주의와 그 활동에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조언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워크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내공도 쌓고 empower도 해서 앞으로 보다 힘차게 살아가는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총여학생회의 지난 궤적을 돌아보고 행사를 정리해보는 사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자신을 표현해보고 이를 통해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3대 ~ 16대 총여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면과 짧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구요.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코너도 있습니다.

모두의 fenergy가 끝없이 up되는, 즐겁고 활기찬 워크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여성주의자들- 멋진 밤을 만들어보아요!

Thanks Goddess, i'm a Feminist-*

프로그램 -*

[5:00 ~ 6:30] 자기 소개하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처음만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 소개하면서 술술 워밍업 해봐요. - 이름표에다가 예술 혼을 담아(^^) 자신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표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 5가지를 말해주세요.

[6:30 ~ 7:30] 식사 및 영상보기

자기소개 하느라 나뭇 간장했을 텐데, 맛있는 음식 먹으며 릴렉스해보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이전 활동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7:30 ~ 8:10] 연세 여성운동사 들어보기

이전 활동에 대한 영상과 문서자료, 사진첩을 보고나면 아무래도 할 이야기들과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듣고 이야기해보아요.

[8:10 ~ 10:40] 주제별 이야기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것이 주는 행복만큼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여성주의자로 잘 살기를 방해하는 '무언가'들을 하나씩 풀어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토닥과 식초, 썸이 그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시작합니다.

주제별 이야기 -*

♀ 식초의 이야기 ♀

나는 소심한 새내기였다. 여중여고를 졸업한 나로서는 남자선배 동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충격 앞에서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증스럽게도 자연스레 내 목소리는 작아졌고, 나의 과거를 모르는 이들은 급기야 날 '여성스러운 아이'로 봐버렸던 것이다. 여성스러움의 기준이 뭔지조차 몰랐던 내게 그 반응은 실로 재밌기만했다.

나의 들끓는 에너지는 갈수록 내적으로만 깊어져갔고 뭔가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 즈음해서 나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무심하고 우연한 기회로 여성주의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해버리고자 결심했던 그 어느 날 들의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주의에 문을 두드리게 된 일이다. 웬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나의 동지가 될 수 있을만한, 얘기가 통하고 수많은 내 젊은 날의 꿈과 고민의 나눔이 가능한 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때문이었다. 그런데, 나의 100중에 3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또다시 무심히 한마디씩 내뱉어 버리고 내 옆을 스쳐지나간다.

"너, 여성주의 하더니 많이 드세졌구나 "

내가 여성주의를 하면서 드세진건지, 드세진 시점에 여성주의를 만난건지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으나, 여성주의를 만나면 드세진다는 전혀 근거없는 공식을 몇몇 이들에게 전해준 것 같아 여성주의에게 미안하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어 한 여자아이의 드세짐의 원인을 자연스레 여성주의에서 찾게 만든 여성주의가 풀어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다.

*** 나는 식초. 홍대에 있는 옷가게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음 . 요즘 홍대에서 프린지 페스티벌하는데 많이들 오시길 ♡

♀ 씬의 이야기 - 여성주의모임이 필요해 ♀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여성주의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고 여성주의를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갈 모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이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주의 모임은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여성주의자 끼리의 연대를 형성하며, 학내에서 여성주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지금 학내에서 여성주의 모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성주의자끼리 친분을 쌓으며 지속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때때로 행사를 만들어나가기도 하는 모임이 없다. 여학우 모임은 있지만 여성주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종종 와해되고 있다. 여성주의 모임을 다시금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어떻게 유지시켜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모진풍파(?)속에 down되기 쉬운 fenergy를 함께 up해줄 친구가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여성주의 소모임이든 동아리든 생활공동체든 어디쯤 하나 있었으면... 같이 만들 친구가 있었으면..

*** 씬(ssum)

이과대에 서식하는 자칭 나르시스트, 나와 내주위의 사람들의 fenergy를 up해 줄 수 있었으면^^ 가끔 누군가 지쳤을 때 파이팅을 외쳐주기도 한데..

♀ 토닥의 이야기 - 연애 ♀

연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노래가사에서 넘쳐나는 이성애적 연애의 이미지는 연애각본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안정감을,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강박을 가져다 주곤 한다.

스스로가 연애에 그닥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연애가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졌지만 어느새엔가 나 역시 연애를 하고 있더라.

명예남성으로서 용감하게 살아왔던 나는 적어도 바보같은 연애는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건만... 순간 순간 흘러넘쳤던 감정의 그 나름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애는 어딘가가 늘 불편하고 답답했다.

'밀고당기기'로 이름 붙여진 연애방식과 평등한 듯 보이는 연인 사이에 감추어진 권력각본에 진력이 날 때 품 만난 여성주의는 내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이었다. 적어도 내가 왜 괴로웠는지는 알려주었던 것.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내 연애도 활짝 폈으면 좋으련만, 그 다음 부터는 나의 몫이거늘.. 여성주의자의 연애란 어떤 것일까? 애인과 전화할 때 나도 모르는 새 나오는 콧소리는 유죄인가? 자아비판은 계속 된다. 그냥 잘 살고 싶다.

*** 토닥

체제파리의 습격, 품위유지비 마련을 위해 노동 중.

연세여성인권운동사

*여기 실린 내용이나 사건들은 편집자의 한정된 자원과 지식과 주변 정황에 의해 많이 제한/편중되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 밖의 각종 실수와 모자란 점들도 양해 바랍니다.

1995년

■ **성정치 문화제¹⁾**

■ **선거(새로운 전선 성의 정치) 낙선**

1996년

■ **1월 'the other-성정치 위원회' 생겨남.**

■ **소위 '연대/한총련 사태'**

96년도 말, 그 때 자보가 불고, 그래서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이름 없는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이야~ 멋지대!) 그래서 이름 없는 사회대 모임이랑, 동쪽이랑, 이과대 여학생회랑,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지. 학생회 구조에 대해서 이견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성자치연합 결성.) 그 여자연에 있던 최승민, 이선민, 조제나 뭐 이런 사람들 96년도 말에 웅성웅성이라고 학생회나, 학생운동 진영 전반에 대해 문제 있다, 지금 이거 안되지 않나, 이런 식의 학생 사회에서 진보운동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게 있었지. 오늘의 책이나, 웅성웅성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의 책 조합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운동하면서 그런...포럼도 하고, 그 때 그 쪽에 동조,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자연에 많았지. 정말 싫었던 거지. 심지어 그 싫어했던 최승민이 선거에까지 나가야 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그 때부터 기독교와의 전쟁은 시작됐지.

【조제】

나는 잘 몰라. 96년도 2학기 때 성이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성정치위원회의 제2대학 행사에 참여한 새내기였거든. 【툼툼】

1997년

■ **여성자치연합**

■ **제1회 여성제-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

그 때 우리가 총여실을 사용하면서, 학생처에 가서 총여학생회분으로 나오는 지원금도 달라고 해서 쓰고 그랬지. 여성제가 있었지, 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 그게 3월에 있고, 그러고 나서 참 여성의 바람소리가 나왔지. (여자연은 반대표 운동 안 했지?) 아니야~ 여자연이 그 당시 질문들이랑 문제의식이랑 이런 거 다 만들었다구. 비문드도 같이 한 거구. 비문드beyond가 그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부웅~ 났지. 그 때 그 총여 후보들이 선거도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감이 없었

1) 그 당시 자세한 이야기는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참조

어. 시행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랬지.

그런데 기독교에서 총여학생회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만들어서, 승민이랑 오늘이랑 해서 선거를 나가게 됐지. 그렇게 학생회 구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참 총여 후보로 나갔으니... 그 때 피튀기게 논쟁도 있었지. 학생회를 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학생회는 정말 아니다, 우리가 왜 안 했겠냐, 학생회 할거면 올해도 충분히 했을텐데.. 결국에는 그래도 공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개네가 안 나왔으면 사실 총여학생회를 할 필요가 없었어. 개네가 그냥 총여를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을 갈 건가, 아니면 개네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할건가 - 총여를 개네가 잡음으로 인해서 여성운동이다 뭐 이런 게 담보되는 면들, 이런 게 곤란한 거지- 이러다가, 그런데 개네가 총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성주의자들이 (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구... 그리고 도저히 저들을 우리의 총여학생회로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학생회가 맛이 갔지만, 그래도 안 된다. 이랬지. 되게 열심히 했어.

여자연 때는 뭐 우리끼리 세미나하고, 패미니즘 캠프도 가고, 청년학생한마당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한강에도 가고.. 여자연 이름으로 행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 상사적인 회의나 이런 것도 없었고 무언가 활동할 게 있으면 그 때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지. 여성제가 있었지. 【조제+툼툼】

■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신문을 내며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탄생

어떻게 3월에 탄생했지? beyond가 탄생했을 때는 그 당시에 사회대 안에 이래저래하게 노망들이 여럿 있었는데, 우연히 '3.8 세계 여성의 날' 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그때까지 아무도 기억하거나 기념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황당해 하면서, 97년 3월 7일에 처음 3.8 여성의 날 기념 행사와 신문을 발간을 했어. 근데 그 행사 끝내고 나니까 다들 사람들이, 우리 이대로 해가지기 너무 아쉽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름도 없이 그냥 몇 번 모임을 했었지. 그러다가 '참여성' 나오면서 굉장히 결집해서 함께 싸우게 되었던 거고. 【시타】

■ **beyond 포럼(화장)**

■ **womb 탄생**

■ **'참여성' 총여 후보 등장, 반대표 운동**

참여성에 대한 반대표 운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 그 이전에 학생회 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 불만도 있었고, '참여성'처럼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버린다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것 같고. 아직도 학관 여휴에서 밤늦게까지 자보쓰고 풀칠했던게 생각이 나. 막 역할 분담해서 단대미다 붙이고 다니고, 떨어지면 열받아 하면서 또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때 반대표 운동이 커지면서, 사회대에서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고립되어 있던 beyond가 여러 여성주의자들과 알게되고 만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시타】

beyond 97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후로 포럼은 97년 10월인가 11월에 있었던 거거든. (그 때 반응은 어땠고, 준비할 때 느낌은 어땠어?) 준비할 때는 재미있었지. 우리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구,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서, 포르노 빌려서, 다 같이 한 집에 단체로 몰려가서 보고, 애들이 막 '숙이 이상해!' 이런 얘기 막 하구. (사회대 대상으로 한 거였지?)음. (사람들 많이 왔었어?)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 (어땠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근데 표현의 자유랑 관련해서

그 때 한참 그 이현세 만화 천국의 신화였나? 그게 막 불거지면서, 표현의 자유 얘기가 포르노 얘기가 지 넘어간 걸루 알고 있거든. 난 처음 준비단계부터 같이 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 주제를 포르노로 잡은 이유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게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때 나는.. 나한테는 그 포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beyond에 합류하게 된 계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나 포르노라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나한테는. 【다다】

1998년

10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두입술과 여성학생활동서관 태동)

"재밌었지,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그런데 사실 싸우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게.... 왜 그 전에 '성정치'이러면서 선거를 나왔었는데, 그 이전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지... 그 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그걸 실제로 하게 된 거지."
"【from 오늘, 옮긴이의 실수로 많은 단어와 문장이 의미가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것임】

여성자치단체들

- 모반, 열세번째, 이과대여성모임, 공대여성모임, 법대성연구모임 등그래지는 온쪽이, 음..

동쪽활동이요? 음~ 동쪽은 법대 여학생회에서 만든 세미나 팀이었어요, 원래. 여름방학 때, 96년도 여름방학 때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게 돼서 들어가게 되고.

(열세번째! 어떻게 생겨났는지) 열세번째는.. 레드랑 만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문제 의식이었나면, 음.. 그 때 한참 살맛을 준비할 때 내가 같이 준비를 하면서, 애들 만났었고, 이제 살맛은 외부단위였고, 그러면 내부에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서 레드랑 얘기를 하다가. 레드 같은 경우에도 학생운동을 접하면서 여성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나도 그 당시에 (쪽팔리는 일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때 좀 약간.. 경직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성운동이 학생운동에 적대적인 게 있었고, 적대적인 이유가 설명이 안되고 언어화 안 되는 것도 컸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보자, 이런 목적 하에 모이게 됐는데, 하면서 사실 맨 처음에 했던 행사는, 여성 미술이었어. 페미니즘 미술. 아 그 때 재밌었어요 그 때 정미언니가 와서 강연했거든. 정미언니가 강연을 했는데, 그 때 정미언니가 여성학과 들어간지 얼마 안 돼서 첫 강연이었다. 우리 돈도 줬어~ (어디서, 그냥 학내에서 모든 연세인을 대상으로?)응. 아 그 때 멋진 기획 자보를 만들었어. 페미니즘 미술 전시도 하고, 살랄라 공주라는 사람이 와서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정미언니는 강연하고.

그 때는 공대같은 경우는 포부를 가지고 찬회가 만들 생각을 했는데, 아 그 때는 공대에는 생공과에 여성모임이 있었어요. 【사바】

(음womb) 음... 내가 제일 인상깊었던 건, 연대 내 유일한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이라는 그 가치를 내건 되게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앞으로 어 그런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 사실 사람들이 '문화' 하면 대중문화, 음악이나 춤을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도 사실, 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여성주의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문제 제기 하고 그랬던 게 멋졌던 것 같애. 불타는 하이힐이 나와서 멋졌지. 그런 것들.. 불타는

하이힐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일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운동의 형태였던 것 같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아이윌 will과... 아이윌이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구, 정이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작azac이 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는 게 좋아. 그래서 참 기분 좋아. 역시 음이야! 【예김】

beyond 포럼, 자치규약 자료집

(자치규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자치규약 아 98년에 자치규약 처음 만들고, 근데 정말 성황리 었거든. 그 토론회 하는 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어? 그 강의실 꼭 찼었다니까. 준비도 되게 많이 하고, 난 자치규약 자료집은 뿌듯한 기억이야. 기뻐. 이번에 만든 광년이기도 그래. 【다다】 나는 제일 기억나는 건, beyond에서 자치규약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때가 제일 많이 기억나. 좋기도 했지만 좋아서 기억난다기보다는 되게 힘들었거든. 처음인데 안 힘들었겠어? 고생도 많이 하고.. 뿌듯하고.. beyond에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막~ 엄청 땀지?(흐뭇흐뭇) 【이안】

두입술 창간 준비호/창간호

선거-여성행동' 선본 낙선

갑자기 생각났어. 그 때 11대 선거 때 3차 유세 때 그 이상한 발언을 해 가지구, 온 여성주의자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게 생각이 났어. 어 진짜 열 받았어, 진짜! 그 때 자치단체들 다 한통속으로 물면서... 나 그 때 beyond 입장이었잖아? 한통속으로 물면서, 테이블을 꾸리겠다, 그랬더니 니네끼리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막 돌아서, 그랬던 기억이 나. 기숙사 가는 길 얘기했어? 11대 선거는 정말... 【이안, 진철씨】

1999년

여성자치연대

동쪽방 시절(이과대 여학생회, 두입술 창고 방 있었으나 잘 사용 안함)

11대 총여학생회의 민행-두입술과 생활도서관 강제철거, 잠수

동쪽방 시절.. 그래그래. 철거 사건도 있었고, 두입술 부르트대 그랬지. 그 때는 이 동쪽방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 어떻게 쫓겨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그러면서도 내 생각엔 참 직무유기랄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애. 학내에서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때 왜 주차 도우미 문제도 있었잖아?) 응, 주차도우미 말고도 뭐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했어. 우리끼리는 막 뭐라고 말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 11대 총여 애들이 다 막 하고.. 【틈틈】

모반 '반성폭력 학교(자치규약 제정운동)'

제2회 여성제- 여우아 여우아 어디있니?

(2회 여성제 어땠어?) 좋았어. (어떤 면에서 좋아?)뭐.. 그 때 기뻐고 총여가 하도 명위를 떨치던 상

황이라서 우리끼리 뭘가 행사를 펼쳤다는 게,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좋았어. (특히 기억에 남는 행사는 뭐였어?) 그 뒤 모반에서 했던 yes, no발바닥도 생각나고, 폐막제도 기억나고.. 영화제도 기억나고, '한평만 다오'도 기억나고 (함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 함들기도 했지.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힘들었지. 좋았어요~ 【독지】

어 여성제는 되게 멋있었어. 그 때는 되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의 막 아시바 쌓아서 직접 하고, 여성 영화도 틀고, 그 때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크진 않더라도, 총여가 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들에서 자기네 정체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김】

■ I will 탄생, 여성학 생활도서관→자치도서관→feminary로 명칭 변경 → 99년 하반기 여성연구소로 이전, 활동 재개

(12대 선거에 대해서..) 그 때 재밌었지. (왜?) 선거라는 게 워낙 하고싶기만 한 공간은 아니잖아. 하는 과정에서야 좋은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괴롭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것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때는 특히 외부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음, 관계가 그 내부가 돈독해 지면서.. 뭐 그렇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만약에 졌으면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그 땐 이렇게, 그 압도적인 표차로, 50%이상의 득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따내면서 이겼기 때문에(그 때 3파전이었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정말 되게 기뻐지, 정말 정말 기뻐지. (선거할 때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이라든가, 황당한 일이나 그런 거 있어?) 뭐 그냥..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게.. 1차 문화유세 때, 독지가 노래하고 들어가다가 넘어졌잖아, 독지는 넘어져서 민망해 했고, 나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괜찮니?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해야 하잖아, 그런데 너무 웃겨서 표정 관리가 안되는 거야. 그래서 나 뒤돌아 서서 막~ 웃었잖아. 하지만 더 기억나는 건, 그게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위기의 상황을 모면했지. 그게 기억이 나. 그 노래 가사와 딱 연관하면서.. 하 정말 훌륭한 위기 관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인】

2000년

■ 12대 로그인 연세총여

(12대 총여하면서는 어땠어?) 아쉬움이 되게 많고.. 뭐 학생회라는 것의 한계도 많이 느꼈고, 아쉬웠던 거는 워낙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도, 총여학생회는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어쨌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회를 같이 꾸린 사람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목이라면 친목이고 나름대로 끈끈함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처음에는 잘 됐어. 아이디어도 짝짝, 업무 하나 꾸릴 때마다.. 과장이 되게 즐겁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일에 치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끈끈함을 다질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한 숨 더 자고 싶고, 이런 상황들과,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일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아쉽지. 【이인】

작년에? 나 말고 판 애들도 있어. 음...글쎄..결혼, 연애, 성 이런 얘기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는데 특

히 그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몰랐던 걸 많이 알았던 것 같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그리고 그 처음 접하게 되는 놀랍게도 친숙한? 편안한 여성주의 문화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 뒷풀이를 하는데 술을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나는 술을 잘 못 마시잖아. 술을 안 먹어도 되는 3월의 그 문화는 참으로 놀라웠어. 그리고 그 때 같이 했던 아이들이, 내کم이랑 노래랑 돌이랑 음, 이규호도 있었다. 무척이나 반갑고 기뻐지. 아, 그리고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기뻐었지. 【여량】

■ 연성부원 활동- 새터 반성폭력 내규, 반성폭력 학칙(규정안) 제정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대학의 여성운동 하는 데서 가장 잘 하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메이데이, 음, 메이데이 집회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감동 받았어. 민중대회 갔을 때는 구호 설명을 해주는데, 그 때는 공부하는 느낌이었었는데, 메이데이 때는 구호를 외치면서, 절감하셔~ 연성부원은 너무 어려웠어. 학칙 문구로 비교하면서 수정했던 거... 【from쉬리】

2001년

■ 13대 별 수 있/다! 총여학생회, beyond, 모반, 페미니리, 두입술, 위가, I will ■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성교육 행사 <body Basics>

솔래 : 우리가 왜 성교육 행사를 했다면, 그 전에는 성폭력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성폭력 얘기가 여성이 피해자화되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은 : 그 전에 워낙 학칙제정을 이슈로 했거든. 97년, 98년 이후로 성폭력 얘기가 주된 얘기긴 했어.

솔래 : 우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스스로도 좀 그랬고.. 행사하면서도 성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 그랬어.

은 : 민우회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와서 했는데,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 전에 바깥에서 한 행사가 별로 없었거든. 여성제가 있긴 했지만 성교육 행사를 바깥에서 하는 건 또 다르니까.

■ 1회 연세여성주의자 워크샵 <지글지글보글보글 연세여성주의자들의 속사정>

은 : 그냥 각자 돌아가면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되고 활동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장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었어. 하다보니까 얘기가 다들 길어져서

솔래 : 그런 얘기를 난생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은 : 사실 나도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도 그 당시에 처음 해보는 얘기들이 많긴 했었어.

솔래 : 서로 놀라워하기도 하고.

2002년

14대 총여학생회, 모반, 페미니티, 두 입술, 비온드

총여학생회 매체 <떡볶이 수다> 발행

이갈 : 그 전에 화장실 신문을 하다가 우리가 매체를 처음 만들자고 해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슈가 됐다가보다는 지금까지 매체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고...

이갈 : (두 입술은 어땠어?) 물론 총여를 하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주변의 다른 여성주의자들을 많이 만난 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처음 여성주의를 알게 된 곳이 두입술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남다르다고나 할까. 책을 만드는 경험이라는 게, 같이 몇 개월씩 기획을 하고 글쓰고,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깊이있게 생각하고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나한테는 일단 그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

(자치단위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 우리도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 단대마다 여학생회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근데 총여를 끝내고 나면 또 보이는 게 다른 거야. 학내에서 운동을 하고 어떤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이, 이미 내가 총여에 있으면 이런 형태 안에서 상상을 하는 거지. (...) 난 이런 고민이 더 재미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문제제기를 하면 적절한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나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슈가 더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가 될까, 그러다보면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학교를 통해 모이지 않아도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이후에 계속해서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아. 대학원에서 여성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니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 그들과 우리의 운동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게 학내로 왔을 때 어떤 모양을 갖출까나 이런 생각을 하면 덜 힘 빠지고 그렇지 않을까.

2003년

15대 일파만파 총여학생회

새터반성폭력 내규 1차 개정

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뚝 : 회의 안건지에 있던 내용을 얘기하자면 ^^ 13, 14대에 했던 성교육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성폭력처럼 연결되기도 했고.

여랑 : (성교육 행사?) 2년 정도 진행되는 걸 봐서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어. 성교육 행사는 민우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콘돔은 이렇게 사용합시다, 이런 내용들이라서...

뚝 : 좀 더 어떤 정치적인 것을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굳이 (성교육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 되나 하는 말도 했고.

교성절연 활동 시작

여랑 : 그 때 학칙관련한 회의만 따로 하나가 있었어. 교성부연 없어지고 나서 15대할 때 전쟁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무슨 연대회의 있고, 메이데이랑 반전행사랑 한 판 때 학칙에 대해서 워크숍을 갖고 나서... 연대에서 교수성폭력 사례 모아서 발표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10월

쯤 교성절연을 제안했어.

뚝 : 그 때 김기환 사건 있고, 서강대 K교수, 서울대 K교수, 동국대, 시립대....

여랑 : 1인 시위하고 그랬어.

여랑 : (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졸업한 이후에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인 것 같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졸업 후에도 여성주의자로 살게 도와주는 거.

2004년

16대 행복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반성폭력 학칙 1차 개정

열 : 그리고 사실 학칙이라는 게... 반성폭력 자체만 가지고 이슈화시키기도 쉽지는 않지만 반성폭력이라는 건 그래도 계속 많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 그게 뭐 이런 저런 논란거리를 불러 일으킨다할지라도, 이상한 관심이라 할지라도 관심거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 이슈파이팅을 쉽게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죠. 근데 학칙이다 보니까 이걸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이 이런데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하는데요. 하면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솔로건으로 걸릴 때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 발언을 해야할 때라든가, 서명운동을 했는데 그 때 설명을 할 때라든가, 이 자세한 조항들을 어느 정도까지 풀어서 얘기해야하는 건지,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을 하면 과연 동의가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Face! Women's Desire>

열 : 그 때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가 개봉작이었나... 그 때, 파일을 구할 수 있던 얘기를 듣고 파일은 찾았는데 자막이 없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지. 일단 이거를 그대로 밀고 가야하나 판 걸 해야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대중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으면서 또 문제의식도 있는 걸로 그 영화가 너무 적절했어. 영화 자체도 매력적이고, 결국 그걸로 밀고 나가기로 하고 포스터 다 찍고 홍보지도 다 찍고 자막만 목 빼고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파일 공유 사이트 들어가서 목 빠지게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자막을 만들었어. 영화 개봉관에 샘이 가서 보이스 레코더를 들고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 자막을 계속 읽는 거야. 진짜 웃겼어.

7회 여성제 <소녀유림> 두고두고 회자되는 달빛시위 남성용 매뉴얼 자보

열 : 그 때 달빛시위 때 나누어줬던 남성용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자와 타게 되면 여자를 먼저 올려보내라, 이런 식의 남성용 에티켓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 찍혀서 디씨인사이드를 전전하며 완전 엽기라는 리플을 달면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반응 자체가, 그 때는 뜨악했거든요. 여성제 때 잘 준비한 행사인데 그게 조롱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니까.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반응들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타격받는다고 느끼는 반증이라고 해야돼나...그렇게 있기 때문에 올해 달빛시위할 때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매뉴얼을 밀고 나갔었죠.

